

人間學의 對象과 그 本質的 制限 (1)

金基錫

學은 모도 人間의 學이다. 이 한 개 命題는 무엇을 意味하는가. 學은 본대 人間만 가진다. 學은 人間의, 人間이 가지는 學이 된다. 여기에 學의 主體의 限界가 온다. 學은 먼저 人間을 反省한다. 學은 人間의 人間에 대한 學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學의 對象의 限界가 벌어진다.

人間 및 人間이 그 속에 잇는 現實的 世界야 말로 一切의 學의 根本地盤을 構成한다. 哲學도 그것이 한 개 學인 한에서 그것은 이 根本地盤을 가지고 또 그 위에서 자러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哲學은 시루 안에서 자러나는 허밀금한 나물 가튼 것은 아니다. 哲學은 검은 地面위에 뿌리를 박고 서서 기운차게 올라 오는 수풀 가튼 것이 되어야한다.

哲學의 地盤. 이것은 人間自身的 『生』이 아닐가. 그리고 人間의 秩序를 그 속에 가지는 實在의 世界가 아닐가. 人間과 實在. 哲學은 여기에서 아모리 달려도 꺾을 볼 수 업는 한 개 넓은 原野에 만난다. 哲學은 부질 업시 엇던 超越的인 存在를 想定할 것이 아니다. 哲學은 뛰어 넘어 理性的 限界. 認識의 構成을 論議할 것이 아니다. 먼저 자기 발밑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人間에로 實在에로 뛰어들라. 人間마저 한 개 實在인 한에서, 哲學이 본대 자기를 實在의 學으로 出發시킨데서 哲學은 人間이 가지는 學의 領野 속에서 자기를 最高의 學으로 主張할 權限을 가져었다.

그러나 二千年 三千年을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이 形而上學이니 認識論이니 價値論이니 하는 이름아래서 이 實在의 學으로서의 哲學을 엇더케 짓발버 노았는가를 보아라.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러 現象學, 生의 哲學, 存在學, 辨證法 가튼 것에 잇서서 다소 實存□□으로서의 復歸를 보히면서도 自然히 한 개 거튼 觀念的 構成에 떠러짐을 보라. 우리들은 이상 **치바든** 哲學을 빼아서다가 그 本來의 地盤인 『生』의 우에, 實在의 우에 옮기지 안혀서는 안 된다.

一切의 學問은 그것이 人間만이 가진다는 主體性的의 限界에 잇서서 모두 人間에 對한 基本理解의 안에서 構成된다. 말하자면 人間이 가지는 一切의 人間의 學은 人間에 對한 理解로서의 人間의 學에 依하여 制約, 規定된다. 一切의 學問 乃至 文化의 根柢는 이 人間의 人間에 對한 學이 아니면 안된다. 人間의 人間이 가지는 學을 規定하는 人間의, 人間에 對한 學이란 어떤 것일가. 그것은 人間의 存在, 또 그 課題에 對한 根源的 解明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人間의 存在 및 課題에 對한 根源的 解明. 이것은 實存의 學으로서의 哲學만이 遂行할 수 잇는 또 遂行해야 하는 한 개 尊貴한 使命이 아닐가. 人間에 對한 理解로서의 人間의 學인 哲學이 人間이 가지는 다른 一切의 學을 規定한다. 哲學은 말하자면 여러 갈래의 學問에 속에 끼여 비비 대이면서 그 자신의 領域을 다루고 잇는 것은 아니다. 哲學은 一切의 學問의 뒤에서 또 밑에서 그것들에게 人間 및 實在에 對한 根源的 理解를 가르치는 말하자면 學問의 背後의 學問 가튼 것이 된다.

文學이 科學이 人間 및 實在에 對한 眞摯한 探求에 드러서는 때 그것은 文學이요, 科學이면서 그 자신 哲學의 領域 을意味하는 것이 아닐가. 一切의 學問은 그것이 哲學에 도라 오려는 한 개 久遠한 鄉愁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모든 學問을 떠나서 또 그것들과 아울러 서면서 哲學이란 것이 그 자신의 옛던 領域을 지키고 잇는 것은 아니다. 哲學은 모든 學問의 밋바닥에서 그것 들을 받치고 잇는 한 개 크다란 深淵 가튼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남의 地盤으로서의 哲學이 다시 그 자신의 地盤이란 것을 가진 다는 것을 우리들은 안에서 말했다. 一般學問은 말하자면 哲學을 通하여 그 자신의 밋바닥의 밋바닥인 生의 世界, 實在의 世界에 連□된다. 學問-哲學- 現實. 그런데 學은 모두 人間이 가지는 學이고 哲學은 人間에 對한 理解이고 나아가 現實은 人間을 主體로 하고 構成되는 어느 意味의 行爲의 世界인데 서 學問, 哲學, 現實을 通하여 모두 人間이 主體 또는 問題가 됨을 본다.